

도서관 조기완공

서천골 발전의 '이정표'

교내특집 도서관 조기완공과 운영방안 점검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이 학교측과의 두차례 협상 끝에 공사기간 1년6개월에 걸친 협정체결하고 올해 12월 입찰을 시작으로 공사를 재개한다.
지난 88년 11월 공조공사 원공이후 중단되어온 도서관이 연건립 7천5백여평으로, 원공된다면 서천골의 종합문화공간과 생활의 중심지로서 캠퍼스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까지 제기되었던 도서관이 진정한 학문탐구의 장으로 자리잡게 될것이다

(편집자 주)

1. 도서관 최종합의
'91년 2학기 개강과 더불어 수원 캠퍼스의 학원지주와 사업의 일환이었던 중앙도서관조기 완공사업이 지난 15일 학교측과 최종합의. 오는 12월 입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도서관 공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하계방학 L.T기간중 하반기 사업계획에 있어 학원지주와 사업에 공사가 중지된 도서관 공사를 조기완공으로 이월하기 위해 도서관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학생총회 및 학교측과 협상 그리고 2차례에 걸친 조영식 총장과와의 면담등을 통해 공사의 입찰기한 및 입찰가, 공정 및 공기를 협의하고 입찰공고는 오는 12월 중순 시작하고 도서관 공사기간은 1년6개월(실 공사기간)로 하며 공사단계 및 공사예정액은 1차단계(92년~94년), 2차단계(도서관 이전후 추후 사업)으로 진행, 1.2차단계 총 1백10여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하는 등의 안으로 일단락 되었다.

II. 도서관 확장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건립공사는 수원캠퍼스의 마스터 플랜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미루어지는 상태를 밟았다.
지난 87년 수원캠퍼스 사무처가

발한 '수원캠퍼스 개발계획'에 따른 중앙 도서관 공사는 학생회관, 자연대학관, 천문대등의 건물공사와 함께는 공사되었다.
88년 5월 7일 착공에 들어간 도서관 공사는 당시 약 80여억원을 투입, 3년여 정도의 공기를 예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물가상승으로 인해 당시 팔조공사를 담당한 유원건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팔조공사를 중단, 그후 88년 3월 학교측에 정식파기를 통고함으로써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여 공사는 중단되었다. 그해 학교측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거듭하였으나 계속적인 유찰로 결국 당해연도 9월 학산종합건설과 팔조공사비 23억 5천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 9개월간 중단되었던 도서관 신축공사가 재개되었다.

팔조공사진척 80%단계에서 내장 공사입찰에 들어갔었던 학교측은 88년 11월 팔조공사의 완공 후 학내 여러건립공사(자연대학관, 학생회관, 산업대 증축, 천문대 건립)으로 인해 자금 및 인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지던 입찰을 1년 6개월동안 미루어 왔던 것이다. 한편 현 수원캠퍼스 도서관 운영체계는 공과대학관과 외국어교육관에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열람실은 각 단위로 배치되어 있고 지난해 완공한 학생회관내

에도 약 3백석의 열람실을 갖춘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장서보관에 있어서는 이공계통의 서적은 공과대학관, 인문사회계통의 서적은 외국어 교육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반 학생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나 서가운영면에서는 완전하게식으로 운영, 학생들의 자유로운 도서관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창고 업무(지정도서제, 희망도서제, 추천도서제, 개시예약도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도서관이 가져야 할 기능에 많은 장애요인을 파생시키고 있다.

III. 도서관 건립의 당위성

전국적으로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백41개의 대

서와 동경대학의 5백만권 장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현 주소를 다스리니 읽을 수 있다. 이와함께 도서관의 생명력은 도서관 이용률이다.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시설과 운영면에서 아직 서구의 대학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러나 나름의 여건속에서도 다양한 기획을 이룩수 있다면 그나마 지식과 정보에 있어 최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희가 사학으로서 출판한 지 40년, 대학으로서 대학의 심장지인 알곡인 중앙도서관은 어떠한가.
한 나라의 발전정도는 그 나라의 고등교육제도의 수준과 성패에 달려 있으며 대학의 성과는 대학 도서관이 훌륭하게 이루어 지는 것

종합문화 공간과 '심장부' 역할 기대 학자사업 성과불구 과정에 아쉬움 남아

학 도서관이 있다.

물론 각 대학 도서관의 장서량과 좌석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부피시설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학의 심장지인 도서관이며 도서관의 장서는 도서관의 얼굴이다. 전국 각 대학의 도서관장 장서가 3~4만권 정도에 불과한 한 곳도 있지만 국내 대학들 서울대가 1백37만권(이하 장서수:90년 한국도서관 협회(연보)보고)으로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의 1천만권 장

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현 주소를 다스리니 읽을 수 있다. 이와함께 도서관의 생명력은 도서관 이용률이다.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시설과 운영면에서 아직 서구의 대학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러나 나름의 여건속에서도 다양한 기획을 이룩수 있다면 그나마 지식과 정보에 있어 최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희가 사학으로서 출판한 지 40년, 대학으로서 대학의 심장지인 알곡인 중앙도서관은 어떠한가.
한 나라의 발전정도는 그 나라의 고등교육제도의 수준과 성패에 달려 있으며 대학의 성과는 대학 도서관이 훌륭하게 이루어 지는 것

에 도서관다운 도서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대학당국이 갖추고 있는 도서관 정책의 미비와 재정상 문제로 인한 도서관 건물의 부재는 대학이 심장지를 갖추지 못함으로 운영되고 죽은 학교로 지명되는 위험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은 분명 강의로만 충족되어질 수는 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습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학습을 위해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의욕을 북돋아 주며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는 장치가 바로 도서관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에 있어 단순한 부속기관, 부속건물로는 있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교육의 장이자 기관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캠퍼스중앙도서관의 완공은 단순한 공부하는 공간의 확충 이외에도 현재 전혀 조정되어있지 않은 도서관 및 학생회관, 자연과학관 주변의 조경사업으로 인해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마스터플랜의 조기실현과 수원캠퍼스내 종합 생활문화공간 창출이라는 또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교 수원캠퍼스의 중앙도서관 건립은 이제 그 어떠한 이유로서도 방해·저해될 수 없는



◇ "조기완공의 열기" 도서관 조기완공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은 거의 폭발적인 것이었으나, 부실공사나 완공비추의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알아보면 지하2층 지상4층의 건물 중 지하 2층의 경우는 기계실로 전기배전기와 냉·난방 시설이 들어갈 때 도서관 뿐만 아니라 자연대, 사회대, 산업대, 학생회관의 전기와, 난방을 공급해 주게 된다. 한편 지하층은 약 3천의 27칸이 지상으로 나오게 되며 양쪽날개 부면에 약 6백80석 규모의 자유열람

새로운 학습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공공재산을 이용하는 도덕심을 갖는 한편 운영자는 기저재는 물론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려는 끊임없는 운영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경희 역사에 있어 대사업인 이번 도서관 공사는 하나의 건물 완공으로서의 의미성만이 아닌 수원캠퍼스에 새생명인jected 되고 그 생명은 곧 대학의 발전과 직결되는 관건으로 남는 것이기도 하다. 수원캠퍼스 건물공사중 가장 큰 공사가 공사기간 또한 비록 휴먼기(총2년 3개월)를 거뒀지만 완공 예정기일(93년말)까지 합산하면 약 8년동안 공사를 하는 것이다.

과 협의에 너무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하겠다.
구체적인 예로 일방적인 회의진행과 학생대중의 힘을 역이용하는 위협적인 고지서는 진정한 회의와 협상과정에 장애요인으로 남아 오히려 학생대중의 역량을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확보되지 않은 술한 루머가 나돌면서 루머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언급의 화제는 총학생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아닐 것이다. 대중적이며 언제나 학생들과 함께해야 할 총학생회가 한 집단의 명분과 실리,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과 단편적 이익 추구라는 것 같은 작별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모습으로 보일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일종의 '집단'으로서 남는 인상이 짙어 보이며 모처럼의 학자사업은 또하나의 '운동'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제 이번의 학자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관망하듯 대중의 힘과 그에 따른 성과물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요 어떻게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야 올바른 학생회로 학우들에게 인정받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적으로 최근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일종의 '집단'으로서 남는 인상이 짙어 보이며 모처럼의 학자사업은 또하나의 '운동'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제 이번의 학자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관망하듯 대중의 힘과 그에 따른 성과물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요 어떻게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야 올바른 학생회로 학우들에게 인정받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V. 도서관 조기완공의 득과 실

'91년 하반기의 학생운동은 학내외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없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류는 학내외 학원지주투쟁(이하 학자투)으로 서 기본적인 노선에 주를 두고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캠퍼스는 그동안 누적이었던 학자투에 있어 건설적인 단점 중심이 되었으며 가장 대중적인 대안이 되었다.

그 가운데 해내 관심사 중 최대치는 공사가 중단된 도서관 공사였다.

이번 도서관 투쟁에 있어 평소 보지 못한 대중성을 확보한 집회는 그동안 학생들이 알마나 도서관에 대한 염원이 강했는가를 대변해 준 표시이기도 하였다.
학사일정을 비워내면서까지 학자투에 함께한 학우들의 열성은 분명 도서관의 주인이 될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 하겠다.

그러나 이번 학자투에 있어 총학생회 주도도 도서관 조기완공을 위한 학자투사업은 계기면에서는 총학생회의 사업은 성과면으로 기울게 되나 그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면서 학생들로부터 지도부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불신과 반목 그리고 명분위주의 투쟁거리라는 아쉬움 섞인 비판을 낳기도 하였다.

학교측과 수차례의 면담에서 학교측도 기존의 불신과 학교측 나름의 방만한하고 부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문제였지만 총학생회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측

VI. 끝맺으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서관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완공에 따른 수원캠퍼스의 변화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원캠퍼스의 도서관은 '명물'로 자리잡을 것이며 학교발전의 선도적인 신일이 될 것이다. 산모의 진통만큼 침묵해 탄생한 이번 도서관.

비록 지금의 고학년 학부들은 이용이 힘들겠지만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모습으로서 '도서관'의 위상은 지금의 학우들에게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 관리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번 '성과'는 한사람, 한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경희인 모두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그 바람으로 이제 창조의 실천적 행동, 그리고 관리로 완전한 중앙도서관으로서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이다.

<취재부>

우리시대의 카인

아마도 카인은 성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자이자 최초로 소의된 사람일 것이다. 목숨을 한 그의 동생 아벨과 제사를 하. 내일이 아들이나 딸이. 그의 것을 물리친 것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동생에 대한 부러움과 사심이 결국 참혹한 일을 벌이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뜯어보면 그러한 카인의 강경 이면에는 심리이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카인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지, 결코 아벨은 그의 제사를 방해하거나 신의 축성을 거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카인은 무신론자나 이교도가 되어 제의에 임하지 않은 신에게 복수해야 하지 않을까. 신에게 흠을 받았다고 곧 동생을 살해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 인연은 단순한 서원함을 넘어선 인간의 심리적 구조가 숨어있는 듯 하다. 신화의 눈으로 본다면 이는 신에 합당한 제물이 아니라는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섬리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공자는 그것을 소의자

의 자기 확인 방법으로 보고 싶다. 창세기의 사일 인간이 자기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은 곧 신의 목숨을 듣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카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소의된 자의 파괴 충동이 것이다.
소의에 대한 논의는 거슬러 올라가면 카인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이교도에 대한 구별에서도 발견할 수 있거나 근세에 들어 루소를 거쳐 헤겔, 포에르바허, 마르크스, 루카치, 프롬 등 귀에 익은 철학인 또한 사회구조와 인간본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소의의 개념이 산업사회의 개화와 더불어 근대의 문명에서부터 끊임없이 회자되어왔다. 점이다.
근대에 들어 소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아마도 가치의 물화(物化)라는 집을 얻어내리라고 묻는 '어린왕자'의 어른들을 통해(물리)와 인간의 도구화 혹은 부종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우리 삶의 마추에서

엄청난 힘으로 들어가는 사회속에서 개인이 무력감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근대사회에 비판적이었던 루카치는 이러한 사회를 전체성이 개인 사회로 보았는데, 그는 그 사회에 삶의 기준과 가치가 사라지고 무력대(7) 단적인 인간이 방황한다고 말했다. 즉 개인의 존재를 보증해주던 목숨이 사라지고 방황한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얼마전 잇달아 일어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사건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취된 채 일방통로를 거슬러 올라간 단적인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직당한 20대 청년이 한가로움 여흥에 들뜬 군중들 사이로 폭주를 감행하는 등의 일은 개인적 차원의 정신병리화으로 풀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시대의 쓸쓸한 영혼 추척자가 휘날릴 통을 들고서 변화를 한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파멸을 당한 어린이가 수차례 자동차에 반화하는 일을 역시 정신감정으로 해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데 재론의 여지

가 없다면 이들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제의에 임하지 않은 이 사회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는 자기존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들의 파괴충동은 아닐까. 프롬은 인간은 자기 존재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고자 하며 그 욕구는 신이 되려고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때때로 파괴의지로 나타낸다고 말한다. 즉 악은 생의 가능성이 구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고신할 수 없는 사회, 어느 개인의 제의에 우리 사회가 응답하지 않을 때 창세기가 아닌 우리 시대에서 도 카인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걷고 있는 보도블럭위로 누군가가 뛰어올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뒤돌아서서 자기의 무방함을 던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서서히 다가와 발목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무섭지 않은가.
우리 시대의 아벨들은 그 스스로를 위해 서로 카인의 제의에 신이 임하기를 서원해야 할 때다.
(風光)

(주)시사영어사

현대 시사 어학

TOEIC 강좌개설

대학생, 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 TOEFL
- TOEFL L.C.
- TOEIC
- GRE
- APRON
- TIME
- Voc. 22,000
- Word Power

- 영어실용기초
- 성문영어
- 성문중급영어
- 영어회화
- 영어문법
- 영어문법
- 영어회화(한국)
- 스프링 중국어

개강 11월 1주

수시등록

파고다공인 전문인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4395~7/5081~2

柳津監修
酒井善孝編著
宋永錫譯著

英語構文論

TOEFL·VOCABULARY & TOEIC 이 책들을 보지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법부터 연구하라라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장미본 ₩ 8,600

TOEFL·VOCABULARY & TOEIC 이 책들을 보지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법부터 연구하라라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상강의서
기초·영어문론
₩ 5,800

이름을 **萬萬社**로

百萬社 266-8304
서울 중로 6가 267

프랑스어

11, 12월 학기 수강접수중
●개강: 91.11.4(월)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알리앙스프랑세즈

- mauger I, II, sans fron. I, II, III
- archipel I, II, III, bonne route I
-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 traduction, theme, SFP
- 각과정 특강 속성반, 문법충정리반
- conversation libre, 시사메타마반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526-0189
TAEJU: 255-4630 DAEJON: 256-5181

alliance Française
한글·韓文·文化·財團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 Level로 구성된 12명 정원제
- 엄격한 학사관리
- TESL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중중: 1~3, 토1~4매시간

PAGODA
LANGUAGE SCHOOL

중로 7가 파고다공원내 274-4000
강남 임곡동 동호대학교길 515-4020

英·日·中·露·獨·佛語

고려외국어학원

외국어교육의 센터

BE WINNERS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중로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